

# 올해 풋갈 생산 크게 늘듯... 유통처리 관심

### 생산 예상량 1500t 설정... 전년 출하량 대비 36% ↑ 도, 내달부터 생산 농장 신청 받고 생산 관리에 철저 “유통·판매처·가공업체 문의 잇따라 판매 증가 예상”

2019년산 제주 풋갈 유통·출하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생산 예상량은 1500t 규모로, 2018년산 출하량(952t) 대비 36%, 2017년산 출하량(475t) 대비 68% 늘어나 유통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2019년산 풋갈 생산유통 계획 수립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산 풋갈 출하기간을 전년과 동일하게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잠정 결정했다. 제주도는 작과량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대과 등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풋갈 생산예상량을 예년보다 높게 설정했다. 현재 전문 가공업체 납품은 300t, 농협을 통한 계통처리 500t, 택배 등 농가 자율처리 700t 등으로 추정, 협

의되고 있다. 풋갈생산은 잔류농약 안정성 관리 등을 위해 사전 생산 농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필지 단위 또는 1000㎡ 이상 구획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약안전성 관리를 위해 나무단위 수확과 열매숙기 풋갈 출하농장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친환경인증농장은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풋갈출하 사전 지정 농장에 대해 1회당 18만원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풋갈은 풋갈청, 풋갈음료 등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농약사용 등에 대한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생산관리를 하고 상품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포장 상자 구입비는 5kg당 700원으로, 통일 디자인으로 제작돼 보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통출하 등 유통·판매처가 2017년 6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늘어났다”며 “올해는 유통·판매처는 물론 가공업체 문의가 잇따르는 만큼 판매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풋갈은 지난 2016년 조례에 의해 노지감귤의 미숙과로 개념 정리가 됐다. 풋갈과 가장 헛갈리는 ‘청귤’은 단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진기자

# ‘장애인 車’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 도의회, 조례 개정안 예고 교통약자 불편사항 최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차고지증명제에서 장애인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토록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 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 제주교육 공론화 첫 의제 4개 압축

### 이달말 회의서 최종 결정 6월 본격 공론 절차도 관심

제주교육의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4개 예비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도민들이 직접 제주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주제가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교육의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의 모 두 발언을 비롯해 전체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선정된 예비 의제는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 ▷중·고등학교 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지속여부 및 운영방법 개선 등 4가지다. 도교육청은 예비 의제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열리는 3차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제가 선정된 후에는 도민배심원단 운영 방안, 여론조사, 도민토론회, 학생 참여 규모 등에 대한 공론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월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론화 과정마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자치, 참여, 속의, 소통으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구산마을~아연로 확장 추진

제주시는 최근 아라동 지역 인구유입 급증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해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구산마을~아연로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지난 201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산로~아연로 총 550m 구간 중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아연로에서 구산마을 진입구간 170m에 대해 총사업비 21억원(보상 16억원, 공사 5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전기자동차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사진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폐막식. 사진=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제공.

# “전기차 대중화 이끌며 더 성장할 것”

###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 11일 나흘간 일정 마무리 150여개 기업 참가... 글로벌 시장 판로 확대 기여

전기자동차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전기차 혁신을 향해 질주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기차엑스포는 (사)국제전기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가 주최하고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대환·야코브 사마쉬 뉴욕 주립대학교 부총장·문국현 NPI CEO)가 주관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22개 컨퍼

런스에 58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전기차 관련 전문 바이어와 15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중소·중견 전기차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엑스포에서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코나 일렉트릭·니로 EV·쏘울 부스터 EV를, 한국닛산에선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닛산 리프’의 2세대 모델을, 재규어랜드로버는 순수 전기 SUV 아이-페이스(I-

PACE)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KT는 엑스포기간 5G 상용 네트워크가 구축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0km 구간 중 7km 구간을 45인승 버스로 약 10분간 자율주행하는 시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등의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현대차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현대캐피탈, 대영체비(주)간 제주도 지역을 운행하는 우체국 운송 차량을 경유차에서 현대차의 친환경 전기차 ‘포터 EV’로 전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앞으로도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면서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성년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0일 대정향교(전교 이사신)에서 개최할 제47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를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전통성년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의복인 전통예복을 입고 남자는 갓을 씌워주는 관례와 여자는 경우 쪽을 올려 비녀를 꽂는 계례에 이어 성년으로서의 서약, 이들에게 덕담을 전달하는 수훈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행사 참가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0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귀포시 홈페이지 주소리(알림)에서 서약을 내려받아 이메일(idnsh255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여성가족과 760-246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6차산업육성 사업대상 공모 1곳당 최대 1억667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대응 6차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6차산업을 추진중인 농업법인과 농산물가공업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 자

부담 확보, 운영기간 1년 이상 등의 공모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등 농업법인 기본요건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사업 규모는 1개소에 1억6670만원(보조금 1억원, 자부담 667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체형) 시설이나 기계·장비 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경영체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공모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 참가자 모집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녹고미의 의미 찾기”

-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녹고미와 애월꽃자원에서 사진, 미술작품 교육과 제작을 위한 연속적인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개최
- 주관/ (사)제주자연학교
- 후원/ 녹고미권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 강사: 스마트폰 사진 김민수, 미술 홍진숙
- 교육 시수: 사진: 5/18-19, 6/15-16, 7/06 (이론과 실습 10회), 미술: 6/01-02, 6/29-30, 7/07 (이론과 실습 10회)
- 교육 결과물: 교육 이후 전시준비와 10월 전시예정
- 교육 장소: 녹고미 안트레센터(장전공동목장 내)
- 참가자: 스마트폰 사진, 미술 각 25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sae1998@naver.com) 1인 2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담당자 연락처/ 010-5589-9507

## 선자연

###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호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당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 전액무료교육 매월최대 116,000 지급

### 전기내선공사 실무자양성과정

1기 취업 86% 달성 100% 취업연계

-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 교육기간: 6월 개강예정 - 6.5개월 과정
-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등
-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 : 747-5252 jejujwon.com

※ 본교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 태양광

### “누가”시공 하세요?

- 발전사업: 초기자본 0, 토지소유자 무자본 발전소 운영, 유지/보수/관리 전문, 친환경 스크류 공법
- 가정용 태양광: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가정용 태양광전문 설치 기업,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omenergy.com